

취업난 시대 직업기술훈련학원이 뜬다

광주 학원 운영 사업자 전년보다 10.5%, 전남 5.2% 증가 웹디자인학원 수강생 두배...노사발전재단 재취업 교육자 몰려

1. 광주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정모(17)군은 방과 후 친구들과 달리 공부를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하거나 학원에 가지 않는다. 대신 광주시 서구의 한 미용학원을 다니며 미용 관련 국가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그의 부모들도 정 군의 선택에 적극 동의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워낙 취업문이 좁은 탓에 남들보다 일찍 자신만의 기술을 갖춰 취업전선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정 군은 "중학교를 졸업하며 고민 끝에 미용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며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 기술을 배우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2. 여수에서 광주로 올라와 영상·편집 전문학원을 다니는 박모(여·27)씨는 최근 취업에 성공했다. 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뒤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해보려 했으나 그 문턱이 너무 높았다. 대학 졸업 후에도 수년간 취업준비를 하던 그는 '관련 경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에 1년 전부터 영상·편집 학원을 다녔다. 광고와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마야(3D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배운 덕분에 수도권에 있는 영상전문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

비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국가자격증 취득과 전문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지역 내 직업기술훈련학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 이후 생계를 위해 일찍이 재취업 준비에 나서려는 직장인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6월 국제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지역에서 직업기술훈련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총 46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2명에 비해 10.5% 증가한 수치다. 전남지역 역시 같은 기간 366명에서 385명으로 5.2%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기술훈련학원이 증가한 배경은 역시 지역 내 극심한 취업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광주지역 청년취업자는 1만2000여명으로 청년 고용률은 4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4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임금이 낮은 점도 문제다. 최근 광주시의 청년비상금통장을 신청한 광주지역 사회초년생의 평균임금은 134만원이었다.

광주의 한 웹디자인 학원 관계자는 "지난 몇 년 새 수강생 규모가 두배 가까이 늘었고 대학생을 넘어 중·고등학생부터 중년층까지 수강생 연령대도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격증과 전문기술 등 스펙을 갖춰야 하고 전문기술을

배워둘 경우 임금자체가 크게 오른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앞서 박씨의 경우 영상·편집업계의 임금이 보통 200만원 안팎인 반면, 마야 프로그램을 다룰 경우 300~400만원을 받는 등 대우가 다르다.

여기에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장년층도 일찍이 은퇴 후를 대비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광주중앙년일자리희망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년 대상 상담과 교육 등 프로그램 수강생은 이날 현재까지 2150여명으로, 이미 지난해 한해 1500여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와 취·창업 관련 교육과정 역시 지난해 33개 과정에서 올해 42개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경제활동이 필요한 나이에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이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막막함을 느껴 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양질의 일자리 찾기 위해 전문기술을 배우려는 수강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287.61 (-4.16) ↑ 금리(국고채 3년) 1.91 (+0.01)
- ↓ 코스닥 815.18 (-4.82) ↑ 환율(USD) 1124.00 (+2.50)

효성티앤씨 '크레오라' 글로벌 데님 시장 공략

독 뒀던 블루존 전시회 참가 한국 기업 유일 전시 부스

효성티앤씨가 스파텍스 원사인 '크레오라'로 글로벌 데님 시장 공략에 나선다.

효성티앤씨는 지난 4~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블루존 전시회에 참가,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데님 전용관에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크레오라 에코소프트 등 데님용 기능성 원사 제품을 선보였다.

회사는 이번 전시회에 가로·세로 양방향으로 신축이 가능한 기술인 '크레오라 핏스퀘어',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함을 주는 냉감 나일론 원사인 '마이판 아쿠

아 엑스', 냉감 폴리에스터 원사인 '아스킨'을 적용한 기능성 원단 등을 전시, 소개했다.

블루존 전시회는 매년 전 세계 1000여개 섬유 업체들이 참가하는 뮌헨 페브릭 스타트 전시회의 데님 전문 전시회로, 지난 1995년 시작됐다.

효성티앤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데님 의류에 최적화된 크레오라를 선보이며 신규 고객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크레오라는 데님 등 스파텍스가 활용되는 새로운 의류 및 섬유 부문에서 시장을 리드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농협-농관원 전남지원 현장 소통 간담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대선)는 6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종신)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협 시·군 대표 조합장, 농협 시·군지부장, 농관원 시·군사무소장 등 80여명 참여했다.

박대선 본부장은 "민·관 협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안전농산물 공급 확대'라는 업무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준중형 세단 '더 뉴 아반떼' 출시

디자인 완성도 높이고 연비 등 실용성 강화

준중형 세단 '더 뉴 아반떼'가 출시됐다.

더 뉴 아반떼는 2015년 9월 출시된 아반떼(AD)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고 연비 등 실용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활공하는 제트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을 연출해 전면부는 강렬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후면부는 세련되고 날렵한 모습을, 실내는 입체적이고 스포티한 조형미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안전 사양으로는 안전하차 보조(SEA), 운전자 주의 경고(DAW),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후방 교차 충

돌 경고(RCCW) 기능이 새로 적용됐고 편의사양으로는 서버형 음성인식 '카카오' (아이)와 라디오 등에서 재생 중인 음악을 인식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운드하운드' 등이 추가됐다.

더 뉴 아반떼는 가솔린, 디젤, LPI 등 3가지 엔진으로 운영되며 연비는 가솔린의 경우 15.2km/l (15인치 타이어 기준), 디젤은 17.8km/l (15·16인치 타이어 기준)의 연비를 달성했다.

현대차는 다음달 15~20일 이동형 전시관인 '블록형 무빙 쇼룸'을 통해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23개 지역을 돌며 고객과 만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가솔린 1.6 터보 엔진과 7단 DCT를 장착해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갖춘 '더 뉴 아반떼 스포츠'도 출시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역 중소기업들 해외 수출 판로 뚫어라

무역협회,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시장 판로 확보 지원 본격화

무역협회가 지역 기업들의 하반기 해외 시장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에 본격 나섰다.

6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무역협회는 오는 11월 열리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무역협회는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당장, 오는 11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중국·일본·인도네시아·베트남·말레이시아·홍콩·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온 46개사

53명이 광주·전남 중소기업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협회는 광주·전남 화장품, 아미용품, 생활소비재, 의료기기, 식품, LED, 자동차 부품 등 120여개 지역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해외 시장 공략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또 오는 12월 '2018 코리아 그랜드 쇼싱페어'를 열고 30여개사 식품·화장품 구매담당자를 초청, 수출상담을 거쳐 우수제품을 보유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을 돕는다는 전략도 세웠다. 지역 기업들과 공동으로 하는 해외 수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한다.

협회는 오는 10월 말 열리는 광주주 중국 수출입상품 교역회와 중국 상해 국제수입박람회(11월), 홍콩 국제마용전(11월) 등에 참여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외 무역포럼을 열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경제 트렌드를 제공하는 한편, 무역아카데미를 통해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